

국제학회 참관기

국제해면동물학회를 다녀와서



심정자

- 196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과 (이학사)
- 1968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이학석사)
- 1979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이학박사)
- 1983~1984 미국 남가주대학 생물학과 (Post-doc)
- 1980~현재 한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국제해면동물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nge Science)는 정기적으로는 5년마다 열리는데 최근 해면동물로부터 신물질 연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다음 정기 학회를 앞두고 중간 학회를 매년 한번 더 두기로 하였다. 그 첫번째가 일본에서 열기로 되었고, 1996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본 교토에서 40분 거리인 Ot-su의 유명한 Biwa호수가 있는 Lake Biwa Research Institute에서 열렸다. 일본의 중심부 쪽에 위치한 바다처럼 넓게 보이는 호숫가의 연구소에서 호수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 아무런 공해도 없는 것 같으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었다.

떠나기 얼마 전부터 있었던 독도 망언 문제는 바다 동물을 다루는 내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더 큰 분노를 안겨 주었고 이 학회에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하였다. 등록을 위해 11일 오후 3시 연구소에 도착하여 조직 위원회 Chairperson이며 동경에 있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Dr. Watanabe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과는 3.4차 회의때 이미 친숙해졌

으며 매우 겸손한 분으로 우리를 반가워했다. 내달이 정년 퇴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발생, 생태 연구 발표를 하는데 놀랐고 더구나 퇴임 후에는 일본에 분류학자가 끊겼기 때문에 본인이 분류를 시도하고 계신다면서 안식년 중인 나에게 일본에 들려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다. Vice Chairperson이며 동경대 생화학부에서 해면동물을 가지고 천연물 연구를 활발히 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로 알려지고 있다는 Fusetani박사는 그 분야 사람에게 의하면 도도하고 특히 콧대가 센 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나 암스텔담학회에서 만난 구면이라 그런지 반갑게 먼저 인사하며 얼마전 부산에 다녀왔다고 하였다.

국제학회때마다 한국의 sponge 학자로 늘 혼자 참석하여 Post Doc때 지도 교수인 Bakus 박사과 함께 행동했지만 각국 참석 인원수가 웬지 국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번엔 대학원생과 함께 참석하였다. 분류학자에 대한 국제학회의 분위기도 실지 느끼고 그 중요성이라든지 또한 여러면에서 자극 받을 것을 기대하고 마침 가까운 곳이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10년전 미국 Woods Hole에서 정기 학회가 끝나고 다음 학회 개최지를 선정할때만해도 일본이 열렬한 후보지였는데 그때 5명의 일본 sponge학자로선 어렵다고 사양하였었다.

10년후 지금 일본의 물가가 많이 바싹탄인지 의외로 외국학자는 많이 보이지 않았으나 일본의 sponge 생물학자는 40여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분류학자는 없었다. 일본의 해면동물연구사를 발표한 교수는 앞으로는 일본에 분류학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해면동물 분류학자는 손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원로들에 한해, 학회내내 해면동물을 재료로 하는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분류학자들의 밑줄 위기를 염려하고 있었다.

분류학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 대학원생은 생태연구자와 화학, 천연물 연구자들에 싸여 벌써 분류 의뢰를 받고 있었다. 일본은 우리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담수해면에 대한 발생, 생리연구가 활발했고 담수해면이 물을 정화시킨다는 발표를 했다. 담수해면의 분류는 해면동물 발생연구자 Watanabe 박사가 처음 시도해 Biwa 호수에서 채집된 신종을 발표했다. 12일 9시부터 학회가 시작되는데 나는 오후 첫번째 있는 Video Session 좌장을 맡아 낯선 러시아의 여자교수에 관한 상황을 알리고 힘든 러시아에 마음이 바빴다. 총발표논문 58편중 Poster 발표가 9편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두 발표였다.

Session 별로 보면

1. Video session 5편
2. Freshwater Sponge Biology. 4편
3. Developmental Biology I, II. 8편
4. Taxonomy and Physiology of Freshwater Sponges. 7편
5. Taxonomy and Ecology of Marine Sponges. 5편
6. Phylogeny and Paleontology. 4편
7. Natural Products Chemistry I, II. 8편
8. Symposium: Molecular Aspects of Sponge Science 8편
9. Poster Session 9편이었고 천연물화학 연구는 전부 일본인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담수 해면 연구가 활발했고 해산 해면 연구는 약했지만 Watanabe 박사가 앞으로 퇴임 후 분류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 혼자서 해면동물 분류를 하고 있고, 더구나 해면동물은 제주도, 거문도 등에 받을 이를 정도로 많은 분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형태분류만도 굉장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담수해면은 채집만 하고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학회를 통해 서둘러 시작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본인의 Poster발표는 천연물연구팀과 공동 연구하면서 같은 장소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채집하며 확인한 "Two-sponge association from Komun Island in Korea."로서 두해면이 한종의

해면처럼 단단히 붙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생태현상으로 이들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치 피층과 위층처럼 보이고 쉽게 분리되지도 않았으며 항상 같은 짝으로 구성되고 짝을 바꾸는 일이 없었다. 마침 이 두 해면은 세포독성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었다(한국 해양연구소 천연물화학실). 여러 학자들이 unique하다며 관심을 갖고 보았다. 특히 생리화학자들이 관심있어 하였고, 나는 어떤 의견을 원했으나 두종의 공생관계를 생태화학적으로 더 연구해 보면 재미있겠다고 하였다.

목요일 하루는 9시부터 5시까지 교도 주변의 절 등을 관광하였는데 독일 생리화학자 Müller 박사는 구경은 안하고 내내 옆에서 우리 연구실에도 많은 Sample이 있는데 한독협력관계등으로 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이미 준 명함을 또 주곤하였다. 관광이 끝나고 6시에 준비된 reception에서는 일본 전통음식과 서양식 요리가 준비되었고 각국 학자들의 담소동안에 한 쪽에선 일본의 전통 꽃꽂이와 일본 학자들의 가야금 연주도 선보였다.

Reception이 끝나고 일본학자는 제외하고 외국서 온 학자들만 다시 모여 맥주집으로 갔다. 나는 우리 대학원생이 될수록 많은 학자들과 익숙해지는 것이 앞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들과 같이 행동했는데 여기서도 많지 않은 분류학자 때문에 우리 대학원생도 인기였다. 귀국하는 날 본인이 얼마나 분류가 필요한지 실감했다고 한다.

학회가 끝나기 전날은 원로에 해당하는 몇 학자와 저녁을 같이 하였는데, 가장 원로이며 유명한 뉴질랜드 Berquist박사가 함께 저녁 초대를 해주었다. 젊은 대학원생을 분류학자로 키우는데 관심을 많이 보여 주며 그 학생이 흥미 있어 하더냐 등을 묻고 대학원생에게도 직접 관심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불란서의 분자 생물학자, 벨지움의 유전학자, 분류학자 이렇게 5명이 모여 다음 호주에서 있을 학회 이야기와 그 다음 중간학회는 이태리쯤으로 구상한다는 것과 이번 학회에서 생태쪽의 미약함을 지적하고 언젠가 중간학회를 한국에서 여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도 하였다. 과연 일본처럼 10년에 40명으로

늘릴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었다. 아무튼 나의 임무는 한명이라도 더 해면동물을 연구하도록 하고 그중 특히 국제적으로 부족한 해면동물 분류학자를 많이 키워야 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왔다.

일본 동경대 천연물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곧 한국으로 돌아갈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해산 Sponge가 재료로 채집이 되어 보관

된 창고 근처에 한국 학생은 근접이 어렵다는 것, 그들은 그것이 곧 돈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보관한다는 것, 또한 한국인이 그곳에서 학위를 한다 해도 새로운 것은 접어 두고 이미 밝혀진 것들만 테마로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글픔을 느꼈다. 우리도 빨리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커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요구된다.